

# 와이즈(WISE), 2030 스쿨 서베이 (2030 School Survey) 결과 발표

- 2030년의 학교 및 교육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분석 포함

2014년 10월 30일 (카타르 도하) - 전 세계 교육분야의 혁신을 도모하는 비영리기구 와이즈(WISE, World Innovation Summit for Education)가 글로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2030년 학교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육 분야 오피니언 리더 5인의 의견 및 분석도 함께 공개됐다.

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지, 온라인 콘텐츠가 기존의 학교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단 하나의 교육 언어가 생길 수 있는지, 학교가 학문적 지식보다는 개인의 기술과 능력 계발에 초점을 맞추게 될지, 자격증이 졸업장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지 등의 다양한 질문과 교육 현안을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현 교육 시스템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술 및 교육 과정에서의 혁신을 통해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학습 과정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양방향 소통의 환경이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미래의 교육에는 ‘혁신’이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으며, 전문가 중 93% 가량이 새롭고 창의적인 과정 및 교육 방식을 통해 혁신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들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와이즈(WISE)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은 학교가 통합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진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온라인상 정보와 기술의 발전이 개인 대 개인(peer-to-peer) 네트워킹 및 대화와 교류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응답한 전문가의 절반 가량(43%)이 콘텐츠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본 반면, 기존 학교가 지식의 1차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본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그러나 혁신이 기술적인 부분 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함께 강조했다. 전문가의 75% 가량은 2030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개인 및 대인관계 기술이 될 것이라 응답했으며, 학문 지식이 학습자들에게 가치 있을 것이라고 본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전문가의 83% 가량은 콘텐츠가 보다 개인화되면서 학습자별 니즈를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고, 교사의 역할은 강연자보다는 학습 조력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물리적 참여 및 인적 상호작용은 미래에 교육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인증 및 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약 39% 가량은 졸업장이 여전히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것으로 본 반면, 1/3의 의견(37%)은 관리, 협력 또는 창의성 등의 능력을 평가하는 전문 자격증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2030 스쿨 서베이(2030 School Survey)'는 2014년 6월 3일부터 30일까지 1만 5천 명 이상 소속되어있는 글로벌 와이즈(WISE) 커뮤니티의 대표 전문가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는 2014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2014 와이즈 서밋(WISE Summit)에 앞서 발표됐으며, 서밋에서는 와이즈(WISE) 커뮤니티 소속 1,500명의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상 - 창조 - 배움: 교육의 중심은 창의적인 생각으로부터(Imagine - Create - Learn: Creativity at the Heart of Education)”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전문가들의 견해는 설문조사 '주요 내용 요약(Executive Summar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약본은 <http://www.wise-qatar.org/school2030>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